

# 에어부산, '에어부산 드림캠퍼스' 운영… 항공전문인력 양성

올해 210명 예비항공인 육성  
직무실습·이력개발 기회 제공  
“14년간 쌓아온 노하우 전수”

에어부산이 항공전문인력 양성과 항공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에어부산 드림 캠퍼스'를 개설,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에어부산은 11일 '에어부산 드림 캠퍼스'가 부산지역 항공 관련 학과 학생 및 항공분야 취업 준비생을 위해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과 협업해 만든 미래 항공인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직무 체험과 항공업 전반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운영 기간은 이달부터 12월까지며 ▲운항 ▲정비 ▲캐빈 ▲일반 4개 분야 중 희망 분야 현업 부서에 배치돼 한 달 동안 실습 경험과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직무체험과 분야에 구분 없이 2 개월간 항공산업 전반에 대해 교육을 받는 맞춤형 교육과정 2개의 프로그램



에어부산 안병석 대표(앞줄 왼쪽 3번째)를 비롯한 관계자들과 참여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으로 진행된다.

에어부산은 현장직무체험을 4번에 걸쳐 1기수에 40명씩 총 160명, 맞춤형 교육 과정은 50명을 선발해 올해 210명의 예비 항공인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지난 6월 현장직무체험 1~2기 교육생(7~8월 교육)을 선발했다. 1기 교육생들은 지난 8일 개강식을 가진 후 이달 12일부터 현업 부서에 배치돼 본격적으로 직무 실습 및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직무체험 3~4기 교육생(9~10월)

과 맞춤형 교육과정 교육생(11~12월 교육)은 각각 다음 달과 9월에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인 에어부산 드림 캠퍼스는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고급 인재 유출과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 지역과 지역 소재 대학교 상황을 고려해 기획됐다.

특히 에어부산은 우수한 교육 시설과 뛰어난 항공인력을 바탕으로 지방에서는 흔히 경험하지 못하는 직무 실습과 이력 개발 기회를 제공하고, 현업에서 필

요한 직무가 무엇인지 체감토록 해 부산에 거주하는 예비 항공인들의 취업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에어부산 안병석 대표는 “지난 14년간 쌓아온 에어부산만의 노하우와 항공 인력양성 능력을 온전히 전수해 대한민국 항공산업과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부산에서 꿈을 키워가고 있는 예비 항공인들이 향후 항공 산업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metroseoul.co.kr

## “영양 고추아가씨 도전하세요”

### 영양군 고추아가씨 선발대회

16일까지 온라인·모바일 접수  
표현력 등 홍보활동능력 중점 심사

영양군은 오는 7월 16일까지 제20회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 참가자 접수를 받는다.

1984년 전국 최초 특산물아가씨 선발대회로 시작한 영양고추아가씨 선발대회는 지난해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한 해 연기하여 올해 20회째로, 8월 27일(금) 영양국민체육센터에서 무관중 온라인으로 본선대회를 개최하게 된다.

참가자는 만 18세 이상 24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의 미혼여성으로 오는 7월 16일까지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접수를 받아 예선 및 합숙을 거쳐 본선 대회에 참여하게 된다.

입상자에게는 시상금으로 진 500만 원, 선 300만 원, 미 200만 원, 달꼬미 및 매꼬미 각 150만 원을 지급하며 후원에 따른 시상금도 별도 지급할 예정이다.

입상자는 영양군 홍보사절단으로서



제19회 영양고추아가씨선발대회 사진

지역특산물 축제, 농·식품 박람회,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백화점 및 대형직판장 할인 판매행사, 해외식품관촉전 등에 참여하여 영양고추 및 지역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언어전달 능력 및 표현력 등 홍보활동 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입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진행하고, 단순히 미적대상을 위한 미인대회가 아니라 영양고추를 비롯한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를 위한 언어전달 능력 및 표현력 등 홍보활동 능력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입상자를 선발할 계획이다.

/영양(경북)=김태우 기자 ktu3987@

### 광주경찰청 학동 재개발 참사 현상·조합 집중수사

#### 붕괴 원인 규명 20일 전후 전망

광주경찰은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현대산업개발의 책임 규명과 재개발 조합 관련 비위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참사는 지난달 9일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사업 철거 현장에서 무너진 5층 건물이 승강장에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참사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붕괴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부실 날림 철거 공정, 안전 관리·감독 부재와 관련해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즉 책임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붕괴 참사 관련 한솔 현장소장과 굴삭기 기사(백솔 대표), 김리자 등 3명이 구속된 상태로 참사와 연관된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를 받는 입건자는 8명이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가 붕괴 당시 철거 현장에 있었던 점과 붕괴 요인 중 하나인 ‘과다 살수’지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 즉 추가 신병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 측은 ‘주의 의무를 기울여야 할 만한 사고 예견 가능성 조차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확보된 참고인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다음 주 중 후속 신병 처리를 적극 검토한다. 철거 공법상 문제, 살수량 급증이 철거물에 미친 영향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청업체 즉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판단이다.

붕괴 원인 규명 발표는 오는 20일 전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발표 내용은 국과수 통보 최종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가 조만간 전달할 1차 분석 내용도 참고한다.

/최규준 기자 ch0720@

### 밀양시

#### 활쏘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경남밀양시 시설관리공단은 국궁장에서 '활쏘기 체험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활쏘기 체험프로그램은 활과 화살의 경쾌함과 해방감을 느낄 수 있어 코로나 속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볍게 즐길 수 있어 주말 나들이 장소로도 좋다. 활쏘기 체험은 매주 화·목·토·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총 4회차로 진행되며, 회차별 12명씩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체험비는 1인당 4000원이며, 체험신청은 현장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부산시 산림조합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총 2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다.

### 부산시산림조합

#### 사회백신 나눔운동 참여

부산시는 11일 ‘사회백신 나눔운동’에 지역 기관장들이 참여해 취약계층을 지원하면서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시산림조합은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사회백신 나눔 성금 1000만원과 이웃돕기 성금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전달했다. 이 기부금은 사회백신 나눔 캠페인과 이웃돕기 성금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 산림조합은 1962년에 설립된 부산의 대표적인 산림 분야 비영리법인으로 부산시의 임도·사방·숲 가꾸기·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사업 대행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에 힘쓰고 있다.

## 영암군,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 삼호 아우름 플랫폼 국비 44억 확보

전남도는 국토교통부의 2021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영암군의 주민이 서로 돌보는 좋은 삶의 삼호 아우름 플랫폼이 선정돼 국비 44억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삼호 아우름 플랫폼은 노후 공동체를 활용해 세대별, 계층별 통합을 위한 생활밀착형 소통시설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오는 2023년까지 국비 44억원과 지방비 33억원 등 총 77억원을 투입한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역민 삶의 질 개선과 공동체 회복,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 리모델링, 주거 환경 개선 등 점단위 중심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최규준 기자

### 먹깨비 사이트서 가맹 접수

경북도가 경북 공공배달앱 출시를 앞두고 가맹점 모집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민관협력형 배달앱은 가맹점에 대해 타임할인·쿠폰할인·스탬프 적립 기능과 주문·배달 원스톱 처리 기능 등을 제공하며 중개수수료는 1.5%다.

경북도는 앱 운영을 맡고 있는 (주)먹깨비가 서울시·충북도·세종시 등의 공동체 회복,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공동주택, 건축물 리모델링, 주거 환경 개선 등 점단위 중심 기반시설을 선정된 만큼 다양 한 배달앱 노하우를 가지고 가맹점 등

록과 관리를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북지회와 경북 소상공인연합회 회원을 중심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하고 있다.

도내에서는 포항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경산시, 칠곡군, 예천군 등 11곳이 하반기부터 우선 시행한다.

가맹점 신청 방법은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경북 배달앱’으로 검색 후 경북 배달앱 먹깨비 사이트에서 가맹점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최규준 기자